

2015 지방직 9급

C책형 가답안 및 오답해설

1	2	3	4	5
①	②	①	①	③
6	7	8	9	10
②	④	④	③	②
11	12	13	14	15
④	③	④	①	②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①	②

1. 정답 : ①

문제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의상이다.

- ① 의상은 당나라 지엄의 문하에서 화염학을 익혔으며 『화염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학업사상을 정리하였다.
- ② 신라 말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온 인물은 선종 승려인 도선에 해당한다.
- ③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원효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사상을 제시하였다.
- ④ 혜초에 대한 설명이다. 혜초는 성덕왕(702~737) 대 인도에서부터 중앙아시아, 아라비아 등 서역의 성지를 순례하고 당나라로 돌아와 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2. 정답 : ②

밑줄 친 '북국'은 발해에 해당한다.

- ② 발해의 최고 교육기관은 주자감이다. 태학감은 신라 경덕왕(742~765) 때 국학의 이름을 고친 것에 해당한다.
- ① 발해의 감찰 기관은 중정대에 해당한다. ③ 발해는 당의 3성 6부제를 수용하여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대표되는 3성 6부의 중앙 정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④ 발해는 9세기 선왕(818~830) 대에 이르러 지방 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를 정비하였다.

3. 정답 : ①

문제의 해당하는 국왕은 고려 광종(949~975)이다. 법안종과 제관, 의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 ① 광종은 과거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승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 ② 원묘국사 요세가 강진 만덕사를 중심으로 백련결사운동을 전개한 시기는 무신정권기에 해당한다.
- ③ 대각국사 의천이 활동한 국청사는 선종 6년(1089)부터 창건하여 숙종 2년(1097)에 완성되었다. 의천은 국청사의 초대 주지가 되어 천태학을 강의하였으며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④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고려 현종 때 판각한 고려 최초의 대장경이다.

4. 정답 : ①

밑줄 친 '그'는 해동공자로 불렸던 최충(984~1068)에 해당한다. 9재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최충의 9재 학당(후의 문헌공도)에서는 9경과 3사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 ② 김부식에 대한 설명이다. 김부식은 인종 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 ③ 최승로에 대한 설명이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유교적 정치 이념을 근본으로 한 시무 28조를 올렸다.
- ④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이제현, 이색, 정도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신진사대부는 유교적인 생활 관습을 시행하고자 『소학』과 주자가 정한 예법서인 『주자가례』를 중시하였으며 당시 타락했던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5. 정답 : ③

문제와 관련한 사건은 병인양요(1866. 9)에 해당한다. 제시문의 박병선 박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③ 병인양요는 병인박해(1866. 1)를 배경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으로 당시 프랑스 군은 강화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 ①, ② 신미양요(1871. 5)에 대한 설명이다.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 7)을 빌미로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으로, 당시 광성보의 어재연은 미군에 맞서 분전하였으나 무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사하였다.

④ 조·미 수호 통상조약(1882. 4)에 대한 설명이다.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 유입된 『조선책략』과 청의 알선을 배경으로 조선은 미국과 수교를 체결하였다.

6. 정답 : ②

②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계기가 된 사건은 1862년 발생한 임술농민봉기에 해당한다.

① 1차 봉기 당시 황룡촌·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은 외세의 출병 구실을 없애고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폐정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전주화약(1884. 5. 8)을 체결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에서는 청·일 군대에 대한 철수를 요청하였다. ③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는 전주화약이 체결된 이후인 1894년 6월부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집강소는 6월 23일 청·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운영되었다. ④ 전주화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에 철군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일본군은 무력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였다(6.21). 이에 동학농민군은 삼례를 거점으로 군량과 무기를 정비하면서 재봉기를 확정하였다(9.14). 2차 봉기는 1차 봉기와 달리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남접과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의 북접이 연합하였다.

7. 정답 : ④

④ 일제는 제1차 세계 대전 중 전쟁 물자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본 산업이 공업화되면서 미국 생산량 감소로 일본 국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조선에서 1920년부터 1933년까지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① 1932년 이후 일제가 실시한 농촌진흥운동의 구호이다. 일제는 농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농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민 경제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춘궁퇴치, 자력갱생, 부채상환 등을 내세웠다.

②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병참기지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총동원법(1938)을 제정하고 한국에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여 쇠붙이 및 미국 등 물자 전반에 대한 공출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포함한 배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③ 1932년 일제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조선소작조정령’을 만들어 소작쟁의를 조정, 억제하고자 하였다.

8.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1938년에 일제가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의 내용이다.

④ 1910년대에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이다.(1912~1918)

① 1938년 7월 7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조직되면서 각 단체들로 결성된 각종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만들어 노동력과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려 하였다. ② 일제는 민족 말살 통치 과정에서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하였고 1940년에는 창씨개명을 통하여 이름까지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였다. ③ 1940년대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는 한국 여성들에게 치마 대신 일본 농촌 여성의 작업복인 몸빼라는 바지를 착용하도록 강요하였다.

9. 정답 : ③

경주역사유적지구는 총 5개의 유적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남산지구, 궁궐터의 월성지구, 고분이 분포한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왕경 방어시설의 산성지구로 구분된다.

③ 신라 시조 박혁거세 신화와 관련한 나정, 포석정, 배리 석불입상과 함께 미륵곡 석불좌상, 칠불암 마애석불 등이 남산지구의 문화 유산이다.

② 첨성대는 선덕여왕 대 만들어진 천문 관측대로,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문무왕 대에 별궁으로 건립한 동궁 안에 세워진 전각인 임해전지 등과 함께 궁궐터인 월성에 위치해 있다. 분황사는 황룡사지와 함께 황룡사 지구에 위치해 있다.

10. 정답 : ②

(가)는 시정 전시과, (나)는 개정 전시과, (다)는 경정 전시과이다.

ㄱ. 경종 대 시행한 시정 전시과는 4색 공복에 따른 관품과 함께 인품이 반영되어 역분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ㄴ. 문종 대 경정 전시과가 정비되면서 별정 전시과로 무산계 전시와 별사전시과가 마련되어 승려와 지사도 별사전의 토지를 지급받았다. ㄷ. 개정 전시과가 마련되면서 한외과 규정이 전17결로 정비되었다. 한외과는 경정 전시과가 정비되면서 소멸하였다.

ㄹ. 전시과는 전국적 토지 분급제이다. 경기 8현에 국한하여 토지를 지급한 것은 원종 대 시행한 녹과전이다.

1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내용이다.

④ 위만 조선은 발달된 농업과 수공업에 바탕으로 한(漢)과 군사적·경제적으로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고구려 태조왕 대에 옥저를 정복하였고 광개토대왕 대에 동예의 일부 지역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② 동예의 씨족 사회적 전통을 보여주는 풍습이다.

③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는 마가·우가·저가·구가의 군장 세력이 있었고 이들 가(加)는 저마다 별도로 행정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었다.

12. 정답 : ③

ㄱ. 고국천왕(179~197)은 을파소의 건의에 의해 춘대추납의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ㄴ. 371년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과의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ㄷ. 소수림왕 대인 372년에 전진의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고, 373년에 율령을 반포하였다.

ㄹ. 장수왕은 남하 정책을 실시하여 475년에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제 개로왕을 전사시켰다.

13.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신라 지증왕 대(500~514)의 사실이고 (나)는 진흥왕 대(540~576)의 사실이다.

④ 지증왕 이후에 즉위한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고(517) 율령을 반포하여 처음으로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귀족을 관료로 등급화하였다.(520) 또한 17관등제와 골품제도를 정비하였다. ① 소지마립간 시기의 사실이다.(493) ② 내물마립간(356~402)이 즉위하면서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③ 신라 중대인 경덕왕 대의 사실이다.

14. 정답 : ①

①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에 실시되었다.

②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침체된 농촌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도시로 확대되었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삼아 추진된 새마을 운동은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③ 박정희 정권 때인 1971년 농촌진흥청에서 통일벼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 생산량이 3배 정도 증가하였다.

④ 제3차(1972~1976), 제4차(1977~1981)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과 광공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공업 구조도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확장시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15.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종래 재지사족인 양반의 이익을 대변했던 향회가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 기구로 전락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②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맡아 보고 있던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① 향촌 사회에서 종래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족층(양반)은 새로 성장한 부농층의 도전을 받았다. 경제력을 갖춘 부농층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다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하였다.

③ 양반의 이익을 대변해왔던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보는 자문 기구로 구실이 변하였다. 곧 수령 중심의 국가 권력이 향촌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재지사족이 지배하고 있던 영역을 장악해 나갔다.

④ 18세기 중반부터 부세의 공동 납부 형태인 총액제 수취권에 대한 향촌 지배권을 두고 구향과 신향 간에 향전이 발생하였다. 부농층은 종래의 재지 사족이 담당하던 정부의 부세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향임직에 진출하거나 기존 향촌 세력과 타협하면서 그 지위를 확보해 나갔다.

16. 정답 : ④

④ 8.15 광복 후인 1945년 12월에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① 여운형은 1944년 8월 좌익과 우익이 참여한 비밀결사인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과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채택하여 건국 강령을 제정·공포하였다. ③ 조선어학회는 1941년 『우리말큰사전(조선어대사전)』의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였다.

17.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선조 대 신진 사람의 지지를 받던 김효원과 왕실의 외척이면서 기성 사람의 신망을 받던 심의겸이 이조 전랑직을 놓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이후 김효원을 중심으로 한 동인,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② 1589년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우의정에 특배된 송강 정철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확대하여 동인을 사사하면서 동인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후 건저 문제(세자책봉 문제)로 선조의 미움을 받아 양사에 의해 탄핵될 때 정철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동인은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의 분파가 이루어졌다.

③ 경신환국 후 서인정권은 남인 처리 문제와 국가 운영 정책을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④ 예송 논쟁은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1659년 효종의 사망 시(기해예송)와 1674년 효종의 비의 사망 시(갑인 예송)에 서인과 남인 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다. 이 때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제가 쟁점이 되었다.

18.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영의정 이원익의 건의에 따라 실시된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영의정 이원익은 1608년(광해군 1년) 5월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③ 선혜정은 대동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설치된 기구이다. ① 어영청은 1623년(인조 1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군영으로 대동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② 상평청은 조선시대 흥년의 굶주린 백성들의 구제(救濟)를 위한 비축곡물 및 자금을 관리하던 관서이다. 상평청은 임진왜란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어 1626년(인조 4) 대동법을 시행하던 경기청(京畿廳)과 함께 선혜청에 부속되었다. ④ 균역청은 1750년(영조 26) 균역법의 시행에 따라 그 업무를 관장한 관청이다. 균역법의 실시로 인해 줄어든 군포를 보충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설치의 목적이 있었다..

19.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안정복의 『동사강목』으로 삼국과 관련한 많

은 사실을 고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이전에 나온 역사서와 삼국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그 사실 여부를 고증하였다.

①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강목법을 가미한 편년체로, 단군조선-기자조선-마한-삼국-고려로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체계화했고,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인식을 탈피하였다.

② 이종휘의 『동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종휘는 단군-부여-고구려로 계승되는 정통론을 제시하면서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지방까지 확대하여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 데 힘썼다.

③ 한치윤과 그의 조카인 한진서가 저술한 『해동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해동역사』는 『동국문헌비고』 등 국내 서적은 물론 중국 사서 523종과 일본 사서 22종 등 총 550여 종의 다양한 외국 자료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해동역사』는 기전체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열전」은 없고, 「세기」·「지」·「고」로 구성되어있다.

④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강목법을 가미한 편년체의 서술 방식으로 백과사전류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백과사전류로는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이 있다.

20.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구한말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대한자강회의 취지문이다. 대한자강회는 윤효정, 장지연 등이 헌정연구회를 계승·개편하여 조직한 단체로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통한 실력 양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국민 교육 강화와 국력 배양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대한자강회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통감부에 의하여 강제 해산되었다(1907. 8).

① 독립협회에 대한 내용이다. 독립협회는 수시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및 토지 조차 요구 등에 저항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러시아의 철영도 조차 요구 저지, 한·러 은행 폐쇄 등을 들 수 있다.

③ 일제 강점기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④ 보안회에 대한 설명이다. 보안회는 원세성, 송수만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반일 규탄 시위를 전개하였다.